

소액주주 힘 싣는 '전자투표' 제약·바이오사도 동참

코스닥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도입 유한양행·종근당 등 대형사 아직 사실상 참여 높지 않아 영향 미미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에 동참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신신제약은 지난 15일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맺고 3월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코넥스에서 거래되는 바이오코아와 비상장사인 바이오스펙트럼, 씨비엔바이오텍 등도 올해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처음 시행됐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

은 일찌감치 전자투표제 도입을 마쳤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코오롱생명과학,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등 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주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형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둔한 상태다. 보령제약이 제약업계 중 가장 빠른 2015년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GC녹십자와 대웅제약,

광동제약, JW중외제약이 2017년 주총 전에 전자투표제 계약을 마쳤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제약 매출 1위 기업인 유한양행은 아직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종근당바이오만 2017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

을 뿐 아직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한독, 동화약품 등도 아직이다.

소액투자자 수가 많은 바이오 대장주들도 움직임이 없다. 현재 코스피시장 시총 4위에 올라있는 셀트리온의 경우, 계열사인 셀트리온제약만 지난 2016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자투표제 도입 계

획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자투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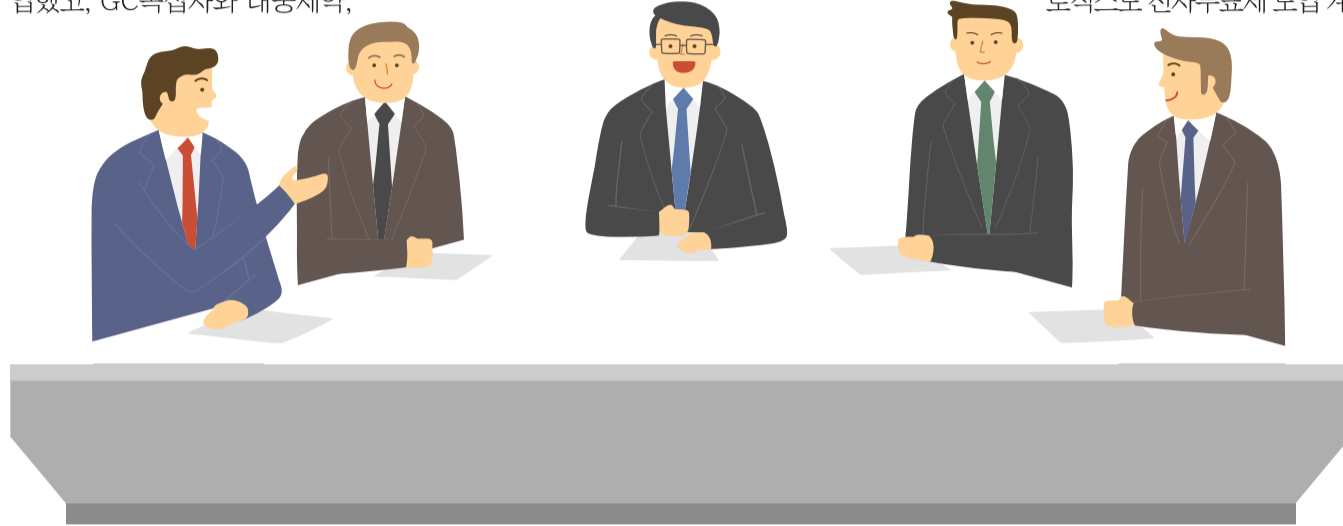
주요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두가지다. 우선, 전자투표제의 활용이 미미한 이유가 가장 크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를 일찍 도입했지만 도입 첫째 이후 주총에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전자투표를 시행해도 사실상 주주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도입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소액투자자들이 몰리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주의 경우 주가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소액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부결시키면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주주들에게 좋은 제도일 뿐 기업측에는 부담이 더 큰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eul.co.kr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시술 2600건 돌파

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메디파마는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 (INVOSA-K·사진)의 시술건수가 2600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인보사-케이는 2018년 12월 기준, 시술건수 2600건을 기록했으며, 매일 200건 이상의 시술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인보사-케이를 투여할 수 있는 유전자치료기관(병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보사-케이 출시 전 58곳에 불과하던 유전자치료기관이 현재 898여 곳으로 늘었다. 인보사-케이의 환자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의 일본 라이선스 및 중국 하이난성, 홍콩, 마카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수출 계약을 통해 약 20여 개국에 1조 원의 해외 수출도 진행 중이다. 또 미국에서는 2018년



11월 21일부터 임상 3상 첫 환자 시술을 진행했다. 미국 주요 병원이 포함된 60개 임상기관에서 1020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케이"는 혁신 신약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20년 노력의 결정체"라며 "새로운 골관절염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 치료제로서, 인보사-케이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식약처, 신학기 맞아 급식소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까지 이어진다.

중점 점검대상은 지난 3년(2016~2018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며,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성인 야간노 원인 치료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지하 2층 중강당에서 야간노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개강좌는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윤하나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 성인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는 야간노

의 원인과 종류별 치료법, 일상생활에서 예방하고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인테리어·맑은 공기,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KCC·한샘·경동나비엔 '코리아 빌드 박람회'

봄철 맞아 청정환기 신제품 선봬 실제 제품 설치한 체험존도 마련

KCC와 한샘, 경동나비엔이 20일 시작해 24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빌드 박람회'에서 제품을 뽐내면서 봄철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21일 관련회사에 따르면 KCC는 이번 박람회에서 2019년 홈씨씨인테리어 신규패키지 3종인 ▲오가닉(Organic) ▲소프트(Soft) ▲트렌디(Trendy)를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홈씨씨인테리어 부스를 방문한 고객은 신규 패키지 3종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하이브리드 환기장치와 미세먼지 방충망 등을 포함해 KCC의 다양한 창조 제품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실물 제품과 함께 단면도를 볼 수 있는 샘플 제품까지 함께 배치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동식 구경하는 집'이라는 콘셉트로 차안에 작은 창조 전시장이 마련된 '왕바디 카'는 전시 부스 바로 앞에서 양 날개를 활짝 열고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홈씨씨인테리어는 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왕바디 카를 이용해 전 시장을 찾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전국의 아파트 등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KCC는 전시 기간 내 홈씨씨인테리어 부스를 방문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한샘은 '2019 봄여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발표회'를 진행했다. 트렌드 주제를 '가족의 개성과 취향이 담긴 집'으로 정하고 박람회장에서는 신혼, 영유아·초등·중고등 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를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 평면에 구현해 놓은 모델하우스 네 채를 선보였다.



한샘은 이번 코리아 빌드 박람회에서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72부스(200평)의 전시관을 마련해 부엌, 가구, 생활용품, 건자재를 총 망라한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코리아빌드 박람회'에 마련된 KCC의 홈씨씨인테리어 부스 전경.



코리아빌드 박람회에 마련된 경동나비엔 부스.

모델하우스에선 한샘이 제안하는 공간패키지 상품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바닥재, 벽지, 천정, 도어, 커튼, 조명, 가구, 소품, 가전기구에 이르기까지 주택에 관한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단품이 아닌 공간 패키지로 윈스탑으로 제공한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집안 곳곳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한샘IoT 플랫폼에 연결된 스마트모션베드, 조명 등 한샘 제품을 한샘홈 앱으로 제어할 수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간단한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

경동나비엔은 이번 박람회서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나비엔 하우스'를 콘셉트로 주거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환경 솔루션을 선보였다.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이 참가하는 전시회 성격을 고려해 프리미엄보

일러 NCB900과 나비엔 에어원 청정환기 등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도 마련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나비엔 에어원 청정환기'다. 이 제품은 기존의 환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의 장점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처럼 실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청정기능으로 정화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호흡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경동나비엔은 청정환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5단계 청정시스템의 기능을 각각 소개했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나비엔 에어원을 통해 디자인된 쾌적한 공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제품을 설치한 청정환기존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bada@